

선교의 동역자 여러분께

2021 년 12 월 24 일

안녕하세요. 2021 년도 마지막 달, 정신차리고 보니 성탄절 이브 24 일 입니다. COVID-19 때문에 학생들을 가르치지 못했고 사람들 만나는 활동을 전혀 못했지만, 2020 년 5 월 1 일부터 시작된 커뮤니티 센터 건축을 2021 년 9 월에 마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축할 시간을 마련해 주신듯 합니다. 올해 NGO 설립허가도 받고, 건축도 마치고, 11 월부터 새 건물에서 학생들을 맞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1. 7 월달에 캄보디아 외교부와 교육부에서 국제 NGO 설립을 허가받고 MOU 를 맺었습니다. (1 년반만에 ) 앞으로는 Foundation Immanuel Cambodia 이름으로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사단법인 임마누엘 캄보디아가 본부이고, 저희는 캄보디아 지사로 커뮤니티에서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국제 NGO 설립을 위해서 한국본부에서 많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NGO 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Foundation Immanuel Cambodia - Foundation Immanuel Cambodia

<https://maps.app.goo.gl/Fdpru9Fu2vaYhNiK6>

Google 에 등록된 NGO 주소입니다.

2. 작년 5 월부터 시작된 커뮤니티 센터의 건축을 올해 9 월에 마쳤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후원자들께서 도와주시고 매주 zoom 으로 건축회의를 하며 아름다운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COVID-19 으로 모든것이 멈추어진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결과입니다.





3. 학교 기숙사에 이웃이 생겼습니다. 박승배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마을로 이사를 오셔서 교회사역을 맡아주시고, 미국 콜로라도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김명숙 권사님께서 2 년동안 봉사자로 오셨습니다. 정 혁 선교사님 내외분께서 일주일에 4 일을 마을 기숙사에 계시고, 크마에 전도사님 가정까지 기숙사에 입주한 가정이 5 가정이 되었습니다. 저녁에 센터에서 가르치고 기숙사로 돌아올때 불켜진 창문들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 집니다. 함께 하는 동역자들이 있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젠 강아지들 대신 한국 사람들과 한국어로 말할 수 있음이 좋습니다.

4. 11 월부터 새로운 커뮤니티 센터 건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2019 년에 배우던 학생들과 새로운 학생들이 더 와서 4-6 시 사이 두시간동안 89 명의 아이들이 9 개의 클라스로 나누어 배우고 있습니다. 박 한나 사모님과 김 명숙 권사님께서 사랑과 열심으로 학생들을 가르치시며 선생님이 모자라 고급반 학생들이 어린학생들을 가르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COVID-19 동안 학교를 가지못해 아이들이 실력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지만 배움에 목말라서 더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5. 캄보디아 COVID-19 상황이 한때는 일일 확진자가 1000 명에 다다른 때도 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안정되어 여행객들을 맞이하는 상황입니다. 저도 sinopham 2 차접종까지 했고, 8 월달에 Johnson & Johnson 백신을 한번 더 맞았습니다.

만약 작년 (백신이 아직 나오지 않았을때)에 캄보디아에 COVID 가 유행했다면 정말 불안했을텐데, 올해 백신이 나오고 나서 캄보디아에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불안하지만 그래도 백신이 있으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을 피부로 느낀 시간들이었습니다.

6. 12 월 19 일 주일에 성탄예배와 함께 커뮤니티 센터안에 “섬란 뉴라이프 선교교회”의 첫번째 예배를 드렸습니다. 마을에 세워진 세번째 교회입니다. 박승배 선교사님께서 담임목사님으로 인도하십니다.

국제학교, 센터, 마을 센터들, 마을 교회의 교인들과 학생들, 이웃 주민들까지 모두 600 여명이 모였습니다. NLMA 에 속해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캄보디아 교역자들과 선생님들과 직원들이 함께 섬긴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곳 캄보디아에서의 선교사역의 방향이 바르게 가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2021 년엔 1 월달에 선교편지를 보내고 12 월달에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한창 COVID-19 이 퍼져있을때 마을 기숙사에서 혼자 몇달을 지내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때문에 불안감에 힘들었던때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니 한순간도 하나님의 눈길이 이곳을 떠나신 적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성탄과 새해를 맞이하시길 기도드립니다. 2022 년도에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며, 아마도 내년엔 안식월로 미국을 방문하여 여러분을 만나뵐 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나뵐 날을 기다리며...

조 에스더 선교사 올림.